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

최혜정*† · 강진아** · 김연희***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The Research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Woman Student - Oriented to Health and Non-health Groups -

Hye-Jung Choi*† · Jin-A Kang** · Yeon-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Suwon women's Colleg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ranch in National Cancer Center

***Institute of Teaching & Learning in 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bstantial foundation to establish effective sex education pla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health related majors and the ones with non-health related majors in knowledge in sex,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experience. We took the form of self-recording to survey 269 single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 is as follows.

For knowledge in sex, including reproductive organs, contraception, delivery, sexual disease, and sexual intercourse, students with health-related majors(20.59) gained higher scores than students with non-health related majors(16.82). Scores for attitude toward sex indicated 2.43 for the health related majors and 2.35 for the non-health related majors. Attitude toward pre-marital sex, sex admissibility, and abortion showed especially distinct result between the two groups.

Whether a student has ever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served as a significant variable to determine knowledge in sex overall, and the indexes such as sexual pleasure, chasteness, marital values, and attitude towards sex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접 수 일 : 2012년 6월 24일, 수 정 일: 2012년 7월 25일, 채 택 일: 2012년 8월 17일
† 교신저자 : 최혜정 (441-748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길 62)
Tel: 031-290-8125, Fax: 031-290-8144, E-mail: choihj8745@naver.com

resul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tudents with sexual experience tend to show more open attitude toward sex.

The result indicated that contraception, pregnancy, and delivery were the parts that the participants most wanted to be educated on.

Knowledge in sex is bo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behavior. Also, the result indicates that knowledge in sex,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significantly affects sexual behavior.

Key words: Attitude toward sex, Knowledge in sex, Sexual behavior

I. 서론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이나, 여전히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교육기간 연장 및 결혼 적령기 증가로 사회적·심리적·경제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완전한 성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시기에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로, 대학입학전과 후의 성관계 경험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입학 전에 비해 대학입학 후 성관계 경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숙과 아나선, 2004). 특히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로 그들만의 양식을 형성해가는 대학연령층의 성문제는 현대사회 성문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으로서, 유입되는 각종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연령인 대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각자 나름대로 준비되고 책임 있는 성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반면 최근 혼전성관계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미혼모 문제와, 낙태문제, 또한 인터넷 유희문화로 인한 사이버 성폭력, 더 나아가 데이트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문화가 발달해 감과 동시에 과거보다 자유로워

진 성문화로 인해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호선민, 2009).

이러한 성 개방화 추세 변화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적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7년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강효운(2007)의 연구 결과, 남자 50.5%, 여자 19.3%가 성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5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혼전 성경험 유무(남자 11.7%, 여자 8.7%)를 조사한 윤경자(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성경험률이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영옥(1983)의 연구나 박희성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월등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상의 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의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연구가 많았다. 특히, 전공분류에 따른 연구로는 간호생과 일반대생의 연구 정도로 계열의 특성에 따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일반 여대생들보다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에 대한 태도나 경험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성지식, 태도, 경험의 실제 차이를 비교하여, 여대생들의 성교육 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의 미혼 여학생인 보건계열(간호과, 치위생과, 의료행정과, 식품영양과) 155명과 비보건계열(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미술학과, 생명공학과,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130명이었다.

조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내용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뒤 총 28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과 분석이 곤란한 16부를 제외한 총 269부(보건계열 147명과 비보건계열 122명)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연구도구로는 지식에 관한 문항, 성태도에 관한 문항, 성행동에 관한 문항, 성경험에 관한 문항,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문항, 일반적인 사항(인구통계학적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지식

지식에 관한 문항은 김진희와 김경신(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자신이 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측정과 정답이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성지식의 경우 배란기간, 임신과 출산과정, 생식기관, 피임방법, 몽정과 월경, 자위, 성병, 성행위 유형 등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 그 정도를 응답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0.857$ 이었다. 객관적 성지식의 척도는 문지원(1999)의 연구에서 생식기, 임신 및 출산, 성건강·성병, 성행위 영역의 문항들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크게 생식기, 임신 및 출산, 성건강·성병, 성행위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문항의 세부적인 구성은 총 31문항 중 생식기 관련 7문항, 임신 및 출산관련 8문항, 성건강·성병 관련 9문항, 성행위 관련 7문항으로 구성하여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표기하여 응답자의 정답만을 1점, 그 외 응답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하였다. 객관적 성지식 문항의 Cronbach's $\alpha = 0.841$ 이었다.

2) 성태도

성태도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의 쾌락·유희적 성, 혼전순결, 결혼관, 성허용성, 동성애, 낙태에 관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태도에 관한 질문지는 허은주(2004)의 연구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자료를 수정·보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태도에 대한 문항은 총 42개 문항이며 성태도에 관한 하위변인으로는 성에 대한 생각(쾌락적, 유희적인 성) 8문항, 혼전순결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허용성 6문항, 동성애 6문항, 낙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의 Cronbach's α 는 0.821이었다.

3) 성행동

성행동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박미숙(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우근희(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16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표기하여 응답자의 예를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행동의 Cronbach's α 는 0.733이었다.

4) 성교육 요구도

성교육 요구도는 박성정(1996)의 성교육 요구도를 수정 보완하여 10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용을 묻는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어느정도 필요하다' 3점, '반드시 필요하다' 4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의 결과 해석은 평균이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내용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교육 요구도의 Cronbach's α 는 0.896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성지식, 객관적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요구도 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성행동은 각각의 문항에 대한 행위여부를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으나, 성행동점수는 실시여부에 따라 실시한 행동을 각 1점으로 하여 총점으로 나타내었다. 계열간, 학년간, 성관계경험유무 집단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요구도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계열별 성태도와 관련성을 chi-square test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는 총 269명이며, 보건계열이 147명(54.6%), 비보건계열이 122명(45.4%)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대상자의 학년분포는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113명, 144명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로는 83.6%인 225명이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며 자취나 하숙, 친척집 거주자는 각각 10%미만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umber	%
Major	Health	147	54.6
	Non-health	122	45.4
Grade	freshman	3	1.1
	sophomore	113	42.0

Variables	Categories	Number	%
Dwelling type	junior	144	53.5
	senior	9	3.3
	Own house	225	83.6
	Relatives' house	3	1.1
	Rented room	26	9.7
	Boarding house & dormitory	13	4.8
	Other	2	0.7
Total		269	100.0

2. 보건과 비보건계열 여대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요구도의 차이

1) 대상자의 성지식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주관적 성지식 점수는 4점 만점에 보건계열이 평균 2.73점, 비보건계열이 평균 2.59점으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주관적 성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5$). 주관적 성지식뿐만 아니라 객관적 성지식에 있어서도 보건계열은 비보건 계열보다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1$). 이는 각 성지식의 하위 영역별로 분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p < .01$) <Table 2>.

<Table 2> Sexual knowledge difference between health major students and non-health major students

Group		Health	Non-health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Subjective	sex knowledge	2.73±0.43	2.59±0.48	2.67±0.46	2.57*
	Reproductive organs	5.52±1.21	4.52±1.59	5.07±1.48	5.76**
Objective sex knowledge	Pregnancy&childbirth	5.02±1.57	4.37±1.66	4.72±1.64	3.30**
	Sex health · venereal disease	5.35±2.27	4.00±2.44	4.74±2.44	4.69**
	Sexual intercourse	4.70±1.49	3.93±1.94	4.35±1.74	3.58**
	Total	20.59±4.75	16.82±5.93	18.88±5.63	5.79**
	Total(n)	147	122	269	

* $p < .05$, ** $p < .01$

2) 대상자의 성 태도

성 태도는 4점 만점에 보건계열의 평균점수는 2.43점으로 비보건계열(평균점수 2.35점)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그

러나 성태도의 영역별로 분석할 때, 혼전순결 ($p < .05$), 성허용성($p < .01$) 그리고 낙태($p < .01$)에 대한 부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Sexual attitude difference between health major students and non-health major students

Group	Health	Non-health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Sex as pleasure	2.50±0.38	2.42±0.40	2.46±0.39	1.60
Remaining a virgin until marriage ⁺	2.45±0.44	2.31±0.73	2.39±0.59	-2.02*
Outlook on marriage	2.49±0.25	2.51±0.29	2.50±0.27	-0.34
Sex admissibility	2.15±0.32	2.05±0.34	2.10±0.33	2.62**
Homosexuality	2.39±0.59	2.41±0.70	2.40±0.64	-0.14
Abortion	2.57±0.29	2.46±0.38	2.52±0.34	2.81**
Total	2.43±0.23	2.35±0.30	2.39±0.27	2.26*

* $p < .05$, ** $p < .01$

+ Reverse calculation score

3) 대상자의 성행동

성행동의 차이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경험한 행동은 이성 친구와의 접촉 경험이었다. 이성 친구와 손을 잡거나(88.8%), 키스나 포옹(69.5%) 경험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성인용 음란비디오나 책을 보는 행동이었다(67.5%). 각각의 성행동에 있어서 보건과 비보건계열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이성친구와의 키스나 포옹경험이 많았다($p < .05$).

<Table 4> Sexual behavior difference between health major students and non-health major students

Group	Health n(%)	Non-health n(%)	Total n(%)	χ^2
Hold hands with male friend	133(91.1%)	104(86.0%)	237(88.8%)	1.756
Kissed or hugged male friend	111(75.5%)	76(62.3%)	187(69.5%)	5.494*
Caressed male friend	52(35.6%)	32(26.2%)	84(31.3%)	2.721
Had sex	44(30.1%)	27(22.1%)	71(26.5%)	2.187

Group	Health n(%)	Non-health n(%)	Total n(%)	χ^2
Had sex and became pregnant	2(1.4%)	3(2.5%)	5(1.9%)	0.431
Had sex and got an abortion	1(0.7%)	1(0.8%)	2(0.7%)	0.016
Had sex and gave birth	0	0	0	
Had venereal disease	2(1.4%)	1(0.8%)	3(1.1%)	0.182
Was raped	1(0.7%)	4(3.3%)	5(1.9%)	2.442
Was sexually harassed in childhood	19(13.0%)	25(20.7%)	44(16.5%)	2.811
Had sex in drink, if not in drink, I would not have sex	10(6.8%)	10(8.2%)	20(7.5%)	0.175
Watched porn film or read porn book	96(65.8%)	85(69.7%)	181(67.5%)	0.466
Telephoned sexual talk	0	3(2.5%)	3(1.1%)	3.631
Watched kiss or caress in TV, book and did likewise	14(9.6%)	7(5.7%)	21(7.8%)	1.365
Watched porn film and did likewise	7(4.8%)	3(2.5%)	10(3.7%)	1.009
Masturbated	19(13.0%)	18(14.8%)	37(13.8%)	.169

* $p < .05$

4) 대상자의 성교육 요구도

성교육 요구도 점수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성교육의 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높게 나왔고, 항목별로 볼 때는 '자위행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특히 '피임'에 관한

교육 요구도는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 계열과 비보건계열간의 성교육요구도 평균 점수는 각각 3.33점, 3.3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영역별로 볼 때 '자위행위'($p < .05$)와 '성충동 해소방법'($p < .01$)에 있어서는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Table 5> Difference in needs for sex education between health major students and non-health major students

Group	Health	Non-health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Reproductive organs structure and function in men and women	3.12±0.64	3.10±0.63	3.11±0.63	0.288
Psychosexuality in men and women	3.36±0.51	3.49±0.58	3.42±0.54	-1.950
Physiological function like menses, ejaculation, nocturnal emission, ovulation	3.44±0.56	3.45±0.61	3.44±0.58	-0.153

Group	Health	Non-health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Masturbation	2.86±0.78	3.07±0.66	2.96±0.73	-2.475*
Solution for sex drive	3.16±0.67	3.40±0.59	3.27±0.64	-3.199**
Pregnancy and childbirth	3.54±0.56	3.44±0.60	3.50±0.58	1.485
Contraception	3.69±0.46	3.66±0.51	3.68±0.48	0.551
Artificial abortion	3.24±0.60	3.21±0.68	3.23±0.64	0.487
STD's(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3.44±0.56	3.44±0.62	3.44±0.59	-0.037
Sex ethics	3.50±0.58	3.40±0.69	3.45±0.63	1.269
Total	3.33±0.42	3.37±0.46	3.35±0.44	-0.582

* p < .05, ** p < .01

3. 여대생의 성관계 경험

여대생의 성관계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관계 경험이 없는 학생은 191명으로 전체의 71%,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 78명(29%)이었다. 성관계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연애경험이 없거나(36.6%), 순결을 지키기 위한 동기(35.6%)가 가장 많았고, 성관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25.2%를 차지하였다. 첫

성관계는 대부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73.0%), 첫 성관계의 시기는 대학 1~2학년이 전체의 62.8%로 가장 높았다. 성관계 장소로는 숙박업소가 5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 또는 상대의 집(자취 또는 하숙방)이 34.5%로 높았다. 성관계 이후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진 경우가 65.4%로 가장 높았고 더 악화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Table 6> Details about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Group	Subsection	n	Percentage
One had not sex		191	71.0
Reason	No date	70	36.6
	Negative thinking to sexual intercourse	5	2.6
	Keep virginity	68	35.6
	No interest to sexual intercourse	48	25.2
One had sex		78	29.0
Condition in first sexual intercourse	Under mutual agreement	57	73.0
	In uneasy position psychologically	0	0
	In drink	9	11.5

Group	Subsection	n	Percentage
First sexual intercourse time	In feeling a sexual urge by mass media	0	0
	Because of strong request by the other party (or yourself)	12	15.5
	Other	0	0
	Middle school	0	0
	High school	15	19.2
	1~2 in college	49	62.8
	3~4 in college	6	7.7
Sexual intercourse place	Other	8	10.3
	Yourself or the other party's house(rented room or boarding house)	27	34.5
	Car	2	2.6
	Hotel or motel	45	57.7
	Entertainment spot(karaoke,video room etc.)	2	2.6
	Outside	0	0
Relationship after sexual intercourse	Other	2	2.6
	Became better	51	65.4
	Became worse	0	0
	No relationship from the beginning	1	1.3
	Same	19	24.4
	Don't know	7	9.0

4.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

<Table 7>은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 요구도 차이에 대한 결과이다. 성관계 경험자들은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성지식, 객관적 성지식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또한 성태도에 있어서도 성관계 경험자들은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개방적이었다($p < .001$).

특히 '쾌락·유희적 성'($p < .05$), '혼전순결'($p < .001$), '결혼관'($p < .001$), '성허용성'($p < .05$)의 영역에 있어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 요구도에 있어서 성관계 경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p < .01$).

<Table 7>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needs for sex education based on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Group		Had sexual intercourse	No sexual intercourse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Subjective sexual knowledge		2.90±0.44	2.57±0.43	2.67±0.46	5.66***
Objective sexual knowledge	Reproductive organs	5.53±1.23	4.87±1.53	5.07±1.48	3.72***
	Pregnancy and childbirth	5.37±1.46	4.46±1.64	4.72±1.64	4.26***
	Sex health · venereal disease	5.33±2.47	4.49±2.39	4.74±2.44	2.60***
	Sexual behavior	5.06±1.61	4.06±1.72	4.35±1.74	4.42***
	Total	21.31±4.96	17.89±5.60	18.88±5.63	4.69***
Sexual attitude	Sex as pleasure	2.56±0.37	2.42±0.39	2.46±0.39	2.597*
	Remaining a virgin until marriage+	2.69±0.41	2.26±0.61	2.63±0.63	6.644***
	Outlook on marriage	2.60±0.27	2.46±0.25	2.50±0.27	4.150***
	Sex admissibility	2.18±0.32	2.07±0.33	2.10±0.33	2.551*
	Homosexuality	2.40±0.60	2.40±0.66	2.40±0.64	0.069
	Abortion	2.54±0.35	2.51±0.33	2.52±0.34	0.554
	Total	2.50±0.24	2.35±0.27	2.39±0.27	4.137***
	Needs for sex education	3.46±0.45	3.30±0.42	3.35±0.44	2.79**

* p < .05, ** p < .01, *** p < .001

+ Reverse calculation score

5. 학년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

1, 2학년과 3, 4학년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 2학년과 3, 4학년은 객관적 성지식과 성태도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주관적 성지식에 있어서는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5$). 무엇보다도 성행동에 있어서 3, 4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성행동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1$).

<Table 8>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between 1, 2 and 3, 4 grade in college

Group	1,2	3,4	Total	t
	Mean±SD	Mean±SD	Mean±SD	
Subjective sexual knowledge	2.60±0.45	2.72±0.45	2.67±0.46	-2.094*
Objective sexual knowledge	19.11±5.51	18.71±5.74	18.88±5.63	0.585
Sexual attitude	2.42±0.23	2.38±0.29	2.39±0.27	1.215
Sexual behavior	2.99±1.87	3.68±2.30	3.38±2.15	-2.703**
Total(n)	116	153	269	

* p < .05, ** p < .01

6. 성지식 및 성태도와 성행동과의 관계

성지식 및 성태도와 성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주관적 지식은 객관적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또한 객관적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도 각각 유의

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1), 성태도와 성행동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이는 주관적 성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객관적 성지식이 높으며 성행동도 늘어남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태도가 개방적이 됨에 따라 성행동도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Group	Subjective sexual knowledge	Objectiv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Subjective sexual knowledge	1	.240*	.255*	.405*
Objective sexual knowledge	-	1	.188*	.231*
Sexual attitude	-	-	1	.221*
Sexual behavior	-	-	-	1

* p < .01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성지식은 성행동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p<.001,p<.05), 성태도는 관련이 없었다. 즉, 주관적 성지식이 높을수록(β=0.342), 객관적 성지식이 높을수록(β

=0.135) 성행동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태도는 성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p=.06$). 모형의 전체 설명력(Adjusted R^2)은 .184로 나타났다.

<Table 10> Factors to influence sexual behavior

	β	t	p
Subjective sexual knowledge	0.342	5.846	.000**
Objective sexual knowledge	0.135	2.338	.02*
Sexual attitude	0.108	1.866	.06
Adjusted $R^2=.184$ $F=21.057$	$p < 0.001$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p < .05$,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여대생들, 특히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을 분류하여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교육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성지식, 태도, 경험의 실제 차이를 비교하여, 여대생들의 성교육 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에 대해 논의하겠다.

성지식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점수에서 비보건계열 여대생과 보건계열 여대생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객관적인 성지식의 총 점수와 각 영역별 점수 모두에서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 여대생은 성에 대한 지식을 전공학문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볼 때, 대상자 모두에서 생식기 점수가 높았으며, 이 결과는 이점숙(2003)연구와 한정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에 성 건강 및 성병에 대한 점수는 낮았으며, 강효운(2007), 전경숙 등(2004)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과 임신, 출산, 피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교육보다는 과학적 근거 없이 오가는 주변의 경험담에서의 성 지식 습득경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보건계열 여대생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다고 여겨지지만, 점수의 수준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성 건강과 성병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성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학교선생님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기보다는 또래친구나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검증되어지지 않은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진희와 김정신, 2008).

성태도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건계열 여대생이 비보건계열 여대생보다 약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이점숙(2003)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보다 보수적인 태도였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성태도의 전체 점수는 4점 만점에 2.39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성태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김혜원(2003)의 연구, 5점 만점에 3.09점을 보인 최명숙과 아나선(2004), 박선영(2002)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하위 영역별 성태도를 보면 혼전순결, 성허용성, 낙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건계열 여대생은 낙태에 대한 태도가 가장 개방적이었으며, 이는 이점숙(200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차이를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성허용성에서는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실제로 보수적인 성허용성을 보이지만,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낙태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성 건강 및 성병에 대한 지식이 낮고, 낙태에 대한 성태도의 개방정도를 고려할 때, 보건계열 여대생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교육과 피임에 대한 심도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계열간의 차별화된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행동에 있어서는 이성친구와 키스나 포옹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69.5%인 본 연구 결과는 고연숙(2001)의 74.1%보다 4~5%정도 낮았으나, 비교적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친구와의 애무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8%를 보였으며,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48%정도가 애무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보다는 높은 경험이며, 이는 성이 청년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청년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전체에서 29%를 보였다. 이는 이점숙(2003)의 7.5%에 비해 높았으며,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17.4%,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12.3%인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나 표현이 개방적으로 변했고 순결 의식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위행위의 경우는 13.8%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점숙(2003)의 연구결과인 9.4%보다 높았으며, 최명숙과 아나선(2004)의 연구에서는 11.2%,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20.6%,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 12.8%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 성행위별 차이는 자료수집 환경의 영향 및 방법의 차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경험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첫 성관계의 상태 질문에서 '서로 합의하에' 73%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 또는 본인이 강하게 요구해서' 15.5%, '술에 취해서'가 11.5% 순으로 높았다. 이는 우근희(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명숙과 아나선(2004)의 연구에서도 '동의하에 자연스럽게'가 46%로 가장 높게 보인 것과 유사하다. 첫 성경험 시기는 '대학 1~2학년'이 과반수 이상의 62.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9.2%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근희(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 1~2학년' 60.4%, '중고등학교'도 28.7%로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성경험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과 대학의 술 문화와 함께 자율적인 이성 관계에서 성 문화가 점점 개방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성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성교제가 많아질수록 이성간의 직접적인 성교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성관계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청소년 시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성행위 이후에 자신을 관리할 능력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인 성지식 및 객관적인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지식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성행동은 객관적 성지식보다 주관적 성지식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주관적 성지식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성지식으로 성행동을 통해서 성에 관심을 갖게 되어 얻을 수 있는 정식 성교육이 아닌 왜곡되거나, 친구를 통해 얻을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성태도에 있어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성교육 요구도에 대한 점수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높았다. 이는 최명숙과 아나선(2004) 등의 연구에서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우근희(2011), 허은주(2004), 박선영(2002), Pluhar Erika 등(1998),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와,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혼전순결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없는 집단보다 더 개방적임을 통해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학생들에게 책임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주관적 성지식 및 객관적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성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성행동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최명숙과 아나선(2004)과 박선영(200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Nancy 등(1998)의 연구도 허용적인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 고연숙(2001)의 연구에서 최근 대학생들의 허용적인 성태도가 성행동 경험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성태도 허용수준이 높을수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성행동 경험률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대상자의 성교육 요구도 차이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자위행위와 성충동 해소 방법에 대해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교육요구가 높아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내용으로는 4점 만점에 피임에서 3.68점, 임신과 출산 3.50점 순으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영휘 등(1990)의 연구에서 피임 24.8%, 임신 2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최명숙과 아나선(2004)의 연구에서도 ‘피임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임과 관련된 정보로 경구피임약, 콘돔사용법 등과 같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대학생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심층 면접이 아니고 설문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설문 문항에 대한 진솔한 응답을 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간의 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이론적인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되,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토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점 개방화되어가는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성지식, 태도, 경험의 실제 차이를 비교하여, 여대생들의 성교육 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의 미혼의 보건계열 여대생 147명과 비보건계열 여대생 12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객관적 성지식 점수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간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생식기, 피임 및 출산, 성건강·성병, 성행위에 관한 지식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보건계열 여대생에게도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2) 대상자의 성태도는 보건계열 여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혼전순결, 성허용성, 낙태 영역에서의 보건계열 여대생의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이었다. 점점 개방화되어가는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3) 성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고, 성태도 중에서도 특히 쾌락·유희적성, 혼전순결, 결혼관, 성허용성, 낙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로써,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피임과 임신과 출산이 가장 많았다. 자위행위와 성충동 해소 방법 대한 내용에서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보건계열 여대생이

더 많은 요구를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성지식은 성태도, 성행동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 성지식은 성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책임있는 성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이론적인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되,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토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강효운.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의 특성과 성경험예측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상공회대학교 대학원, 2007.
2. 고연숙.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3. 김영옥.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3.
4. 김주연.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5. 김진희, 김경신.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08;13(1):123-138.

6. 김향숙. 대학생의 애착·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7. 김혜원.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03; 15(2):309-328.
8. 문지원. 대학생 성교육을 위한 성지식 수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9. 박선영.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0.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울산: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11. 박희성 등.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1995;33(6): 11-23.
12. 우근희.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교 간호대학원, 2011.
13. 윤경자.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1995;33(4):251-263.
14. 이영휘 등.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0;27(1):26-35.
15. 이인숙.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16. 이점숙.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3.
17.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 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1):45-68.
18. 최명숙, 아나선.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10(4):318-330.
19. 한경순, 함미영.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6(1):115-131.
20. 허은주.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연구[박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4.
21. 호선민.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2. Nancy J. Murray et al.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first intercourse among urban students in Chil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998;24(3):139-144.
23. Pluhar Erika et al.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the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998;23(4):288-296.